

還春園



鐵骨紅心  
迺天下  
第一  
畫師



# 월간규문 1월호

Hot Issue	『사기』속 인물, 베스트 & 워스트!
원일의 락락	팻숨 보이스의 <Behaviour> 앨범 수록곡 <Being Boring>
소설 읽는 수경	세계를 올려다보는 짐승의 눈 _아고타 크리스토프, 『어제』
이 사람을 보라	주군을 위해 명예롭게 살리라! 애끓는 연서戀書의 주인공 악의樂毅
에세이 발표	불교n "불교와 스피노자" 시즌2 에세이 발표



# 핫이슈

## 전격 앙케이트! (by 동사서독 학인 여러분)

2014년 <동사서독>에서는, 『본기』 12권, 『표』 10권, 『서』 8권, 『세가』 30권, 『열전』 70권 총 130권의 『사기』를 완독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아마 『표』와 『서』까지 읽은 사람은 (번역자 빼고) 전 세계적으로 <동사서독> 팀뿐이지 않을까요? 하하! 자부심을 가져봅니다. 함께했기에 이런 대장정도 가능했던 것이겠죠. 고마워요, 학인 여러분! ^^

### Best of Best

- 범려 ●●●●●●●● (총 8표 획득)
- 공자 ●●●●● (총 5표 획득)
- 항우 ●●●●● (총 5표 획득)

### Worst of Worst

- 이사 ●●●●●●●● (총 7표 획득)
- 조고 ●●● (총 3표 획득)
- 한무제 ●●● (총 3표 획득)

하여! 무사히(?) 『사기』 완독의 대장정을 마친 기념으로 『사기』 인물 ‘베스트 5’와 ‘워스트 5’를 뽑아보 고자 합니다. “와~ 이거 재밌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막상 뽑으려니 어렵더군요. 왜냐하면 사기 속 인물들은 평면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대 영웅, 절대 찌질이, 절대 선인, 절대 악인도 없는, 다층적 이고 다면적인 인간들이 우글거리는 세계에서, 그래도 각자의 마음을 뒤흔든 인물들은 있었던 바. 베스트와 워스트는 각자의 마음을 저격한 인물들로 채워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동사서독> 학인들의 개인 취향 작렬 앙케이트를 마음껏 즐겨주세요. \*^^\*

### 베스트 (사마천은 제외하고~ ㅋㅋ): 순위 상관없이 강한 인상을 남겼던 인물들을 뽑았음.

### 윤차장

1. 범려 세력을 파악한 자의 삶이란 이런 것이다! 춘추전국시대를 통 틀어 범려 같은 사람은 범려밖에 없었다!
2. 신릉군 명성을 벗어나 진정 사람과 사귀기를 좋아했던 자.
3. 굴원 아~ 이 남자의 비극적 정서가 내 마음을 헤집어 놔는데. 풀어헤친 머리, 까맣게 타들어간 얼굴, 뼈와 가죽만 남은 몸골,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눈동자로 강가를 헤매는 남자...
4. 형가 몸 쓰는 자도 아니고 머리 쓰는 자도 아니고 이 특이하고 복잡한 캐릭터라니! 그를 떠올릴 때마다 여러 감정이 들끓는다.
5. 인상여 기개! 기개! 기개!

### 워스트 (워스트는 뽑기가 힘들다. 이 세 사람만 하려다)

1. 연왕 쾌 요순 코스프레도 정도가 있지. 선양하면 더 성인인가!
2. 이사 "마지막해 조고의 계획을 수락했다." 마지막해는 무슨!
3. 평원군 사람 사귀기를 좋아하는 것 치고는 격이 좀 떨어지는, 그저 귀족남. 너는 왜 그런 애들이랑 사귀니라고 신릉군을 쫓고 왔을 때 알아봤다.

### 베스트

### 제리

1. 사마천 군말이 필요 없는... 열전의 마지막에 자서전을 썼기 때문에 그도 사기 인물의 한 축을 이룸...
2. 범려 구천세가에 숨겨놓은 또 한 명의 인물... 공자와 범려는 동시대 인물... 그런데 서로 전혀 언급이 없음... 자공이 월나라를 오갔 으면 범려도 그를 알았을 거고... 그 배후에 공자라는 인물도 모를 리 없는데... 서로 어떻게 생각했는지 몹시 궁금... 완전 다른 캐릭터라... 뺨을 치고 양념을 가하면 소설도 가능하겠음... 오월쟁패 막후 미스터리 비화 <오월 컨피덴셜>
3. 고조 나라도 항우가 아니라 고조에게 갔을 듯... 예전에 알지 못한 묘한 매력 있는 패현의 노는 남자 유방... 비어있는 중심으로 사람 을 끌어들이는 중력장을 가진 인간이랄까... 그런 인간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노는 남자였다니... 그래서 고조는 더욱 실존인 물이라는 생각...
4. 장의 전에는 소진과 장의에 대한 이상한 선입견이 있었음. 권모술수의 대가 어찌고 하며...(이건 맹자로 인한 편견이었음 -\_-;) 그런 데 이번에 읽을 때 보니 장의는 꽤 의리 있고 소신 있는 남자... 진나라를 위해서는 죽어도 좋다는! 초회왕을 거둬 사기 처먹고 돌아오는 저 간 큰 배포하며...
5. 모수 평원군의 식객 모수. 그는 평원군에게 가서 내 값을 쳐달라고 말했다. 평원군이 너 누구데? 그랬으나 기죽지 않고 내가 일찍 네 주머니에 들어갔다네 내 재주를 숨기지 못하고 송곳의 자루까지 밖으로 드러났을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한 자신감의 레전드! 어떻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세상에 내놓고 자기를 팔 수 있는지... 그들이 원하는 스펙을 쌓는 게 아니라 난 이렇게 하게 다고 해서 나를 사시오!라고 말하는 배짱! 요즘 보기 드문... 사기에나 있는 인물군... 평원군을 따라 초나라에 가서 담판을 짓 는데 일조함. 평원군이 그랬다지... 모수의 세 치 혀는 백만 군사보다 강했다... 나는 감히 다시는 인물을 평가하지 않겠다.

### 워스트

워스트...라고 할 만한 인물이 없음... 워스트라고 뽑아 보면 나라도 그랬을 거 같음 -\_-; 복수심에 불타고, 가진 거 놓지 못하고, 권세를 가지면 눈에 보이는 게 없고... 떠나야 할 때 뭉개고,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고, 고난을 같이 안 하려 하고 즐거움 은 나누자고 덤비고... 뭐... 그래서 딱히 워스트를 뽑기 어렵다는... 인간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다

## 베스트

## 완수 쌤

1. 송양공 전쟁에서 예를 실천한 내가 아는 유일한 인물
2. 관안열전의 안영의 마부 아내가 하는 일상의 잔소리를 자기 변신의 발판으로 삼은 남자
3. 진시황제 완벽한 능력으로 법가를 정치에 적용하여 다시는 법가를 정치이념으로 내세우지 못하게 만든 황제
4. 진평 제사고기를 공평하게 나눠 주듯 정치를 하여 끝까지 권력의 정점에 머물수 있었던 재상
5. 섭정 자기를 알아준 사람을 위해 살인을 하여 빛을 갉고, 자신의 낮가죽을 벗기고 눈알을 뽑고 창자를 쏘아 이자까지 갉은 자객

## 워스트

1. 범려 박수칠 때도 떠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환상을 불러일으킨 정치가
2. 노중련 좋은 글로서 사람을 죽인 선비
3. 조괄 정말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해 40만 명을 생매장 당하게 한 똑똑했던 장군
4. 상앙 인간은 법을 통해 강제로 다스릴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변법가
5. 복식 보통사람의 마음가짐을 지니지 못해 정치에 이용당한 순수한 마음을 지녔던 부자

## 베스트

## 혜경 쌤

1. 공자 사마천의 존경의 염을 담아 되살아난 만세의 스승의 구도자로서의 삶, 논어보다 공자세가가 더 멋있어
2. 범려 세와 때를 읽으며 완벽한 상황 장악력을 가졌지만 떠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람
3. 계찰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 인물
4. 항우 자신의 생의 엷센스를 그야말로 발휘한 사람
5. 섭정과 형가 그들의 두 마음 없음이 서늘하기만 하다

## 워스트

1. 조고 간교함과 사악함이 경악할 지경인데 죽는 것은 그렇게 또 간단하다니
2. 이세황제 호해 진 멸망을 도운 3대 인물 중(조고, 이사와 더불어) 한명, 無力, 無知에서 오는 폭력성
3. 이사 한계를 알면서도 탐욕으로 상황에 계속 끌려가는 모습이 안타깝다
4. 여희 자신의 아들을 태자로 삼으려 음모를 꾸며 태자의 자살과 아비가 아들을 죽이려 만든 원인 제공자
5. 태재백비 탐욕, 참언

## 베스트

## 구혜원

1. 공자 사마천은 독자로 하여금 공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거 같다. 존재감 몰빵. [공자세거]를 읽을 때 전에 없던 찰떡까지 준 주인공을 1위로^^
2. 여태후 [본기]의 충격적인 데뷔(?)로 깊은 인상을 남기더니 다른 편에서는 제국의 안주인으로서 냉정한 사리판단을 보여준 그녀. 알면 알수록 빠져든다.
3. 항우 어쩐지 사마천이 <사기> 쓸 때 베스트 3위 안에 들 만한 인물로 낙점하고 만든 캐릭터 같았다.  
소하 소하 자체보다는 사냥개를 다루는 사냥꾼이라고 치켜 올려준 고조의 평이 있어 더 빛난 인물.
4. 백이숙제 처신 잘하는 인물, 세를 잘 읽는 인물, 남을 잘 알아보는 인물 등등이 판을 치는 [열전]의 시작이 명분만 붙잡고 나머지를 놔버린 백이형제인 건 의미심장했다. 근데 왜 [백숙열전]이 아니라 [백이열전]일까?
5. 사마천 두말할 필요 있남.

## 워스트

1. 여불위 [열전] 내용은 흥미롭지만 인물 자체는 신기하게도 무매력.
2. 이사 조고도 조고지만... 이사 보면 우물쭈물 하다 저럴 줄 알았다고 혀 차고 싶어짐.
3. 이세황제 제국을 말아먹는 정석. "권력이 있는데 쓰는 게 잘못?"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내는 패기.
4. 진섭 발에서 일어나긴 했는데 하는 일은 영웅 아닌 영웅의 열화 카피라 안타깝기까지 함.
5. 한무제 흔히 생각하는 '전성기 시절의 왕'의 환상을 <사기>가 깨주어서 시원섭섭하다.

## 베스트

## 영수 쌤

- 태공망** 주나라 문왕과 무왕의 사(師)가 되어 주나라를 세운 공으로 제태공세가를 당당히 세가2에 올렸을 뿐만 아니라 봉국인 제나라도 확 바꾸기 보다는 원래 것을 유지하면서 부유하게 만듦으로써 귀순하고픈 나라로 만든 능력자!
- 도주공(범려)** 펼 때와 급힐 때, 앞으로 갈 때와 돌아올 때를 알고 사람을 볼 줄 알았던 몇 안 되는 사람.
- 항우** 항우 없는 사기는 상상할 수 없음.
- 후영 & 신릉군** 후영을 알아본 신릉군과 자기를 알아준 신릉군을 위해 산 후영의 삶이 인상적.
- 사마 양저** 병사를 잘 다룸은 물론 “장수가 군영에 있을 때는 왕의 명령도 받들지 않을 수 있소.”라는 말은 장군으로서의 위엄 짱인 듯.

## 워스트

- 진시황** 흥망성쇠의 자연의 이치를 부정한 독고다이.  
**주주여왕** 간언에 귀 막고 간신을 가까이 하여 주나라를 쇠망의 길로 이끈 장본인.
- 상양** “아! 법을 만든 폐해가 결국 이 지경까지 이르렀구나.” 탄식했으나 때는 이미 늦었 다.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걸려 결국 죽음을 맞이하다니.
- 이사** 창고의 쥐가 되고자 했던 인간.
- 등등& 효문제** 단지 효문제의 꿈에서 옷의 솔기가 터진 사람과 같다는 이유로 총애를 받 기 시작해 황제의 비위만 맞춤. 종기를 입으로 빨면서까지 총애는 받았는지 모르나 그것이 또한 화를 부르게 될 줄 누가 알았으랴.

## 베스트

## 선영 쌤

- 범려** 정치가, 농부, 장사꾼 등 다양한 궤적을 그리며 전형적이지 않은 자신만의 독특한 삶을 살아간 범려. 권력에 연연하거나 고경관념에 얽매여 한 곳에 머무르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자기의 삶을 실험하며 살아간 듯.
- 동방삭** 내공도 장난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무게 잡거나 하지도 않고…… 반듯한 지식인과는 다른 모습이 매력 있다.
- 계찰, 오택백** 권력 지향적 삶을 피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간지 넘친다.
- 신릉군** 사람을 알아보고, 신분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넓게 사귀는 신릉군의 비속물적인 면이나 관대함, 지혜로움이 멋있다.
- 유방** 한때 한량 시절을 보낸 남자. 강력한 카리스마로 주위 사람들을 모두 엑스트라로 만들어버리기 보다는, 각자가 가진 개성과 능력을 드러낼 수 있게 하는 고조의 여유로운 듯, 허당스러운 듯, 음흉스러운 듯 한 리더십이 매력 있다.
- 섭정** 그의 충격적인 죽음(스스로 얼굴 가죽을 벗기고, 눈을 도려내고, 배를 갈라, 창자를 굶어내고는 숨을 거두었다. 혈~)과,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음을 선택하는 그의 삶이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정말 기억에 강하게 남는다.
- 여후** 사람을 돼지로 만들어버리는 잔인무도함, 유씨가 아니라 여씨 세상도 가능하다고 믿었던 거침없음, 제국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착착 흔들림 없이 해치워버리는 냉철함. 너무 무섭지만 정말 대단한 그녀.

## 워스트

- 항우** 다 갖고 태어난 엄친아. 왠지 안하무인인 듯 하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듯 하고, 개념도 없는 것 같아서 비호감이다. 수십만의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죽여버릴 수 있는 그의 무딘 면도 싫고.
- 조고** 뭐 이리 욕심이 끝도 없고, 그 욕심의 스케일도 대단한지. 대단한 환관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자기 자신의 욕망 말고는, 주위 그 누구에게도 관심이나 애정이 없었던 것 같은 그의 삶이 참 이상하면서도 의미 없게 느껴진다.

## 베스트

## 은남 쌤

- 여태후** 사기 유일한 여주인공, 남편인 유방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한나라 최고의 권력자이자 본부인의 본태를 보여줌 - 까불지 마라 척부인 ~~
- 공자** 상갓집 개에서 인류의 스승으로 우뚝 서다... 사마천이 공자세가를 너무 애절하게 그려서 오래오래 기억에 남음
- 범려** 권력의 단맛에 취하지 않고 미련 없이 떠나 다른 인생살이로 성공하신 분. 정치가에서 사업가로 변신의 귀재!!! 그리고 아들 죽음까지 미리 통찰하신 대단한 내공의 소유자~
- 진시황** 천하 통일의 황제로 포스를 누구도 따를 자 없음. 가장 강인한 듯 하면서 사람 마음을 뭔가 애잔하게 만드는 황제~ 인간으로 태어나 죽음을 넘고자 했으나 심지어 수레 안에서 객사하심.
- 오자서** 복수는 나의 길!! 강인한 대장부로 나의 기억에 강렬하게 남은 사람. 죽을 때도 그냥 죽지 않고 눈을 빼내 동문에 매달아 오나라 멸망한 것을 보고야 말겠다고 이를 갈고 죽음.

이외 관중과 포숙, 굴원, 항우, 장량, 소하, 한신, 흉노의 중항렬, 급암 등등 고를 수가 없군요.

워스트

- 1. 이사** 취새끼 이상으로 대우해 줄 수 없음. 탄식과 함께 진시황이 일군 진나라는 사라지다~
- 2. 초희왕** 그야말로 장의의 밥, 무료 땅 분양 장의에 속고 굴원도 내치고 진나라에서 객사한 남방 초강국 초나라를 말아 드심
- 3. 제나라 의공과 장공** 제나라 가장 찌질이 왕들의 가장 찌질한 죽음을 보여줌. 의공은 공자시절 사냥한 물건가지고 싸우다 신하의 발을 자르고 다른 신하의 아내를 탐하다 이 두 사람에게 죽음. 제나라 장공은 신하인 최저의 아내를 좋아하여 최저집에서 기둥안고 노래하다 최저 집 담장 넘다 죽음. ~ 에고 내가 왜 이리 자세히 쓰고 있지 πππ
- 4. 공자제자 자공** 말 잘하고 제.오.월 싸움 붙이고 언어와 외교술 게다가 사업수완이 뛰어난... 공자 제자 맞습니까? 마구 혼돈을 일으킨 제자여서. 워스트라기 보다 대반전의 인물이었음.
- 5. 위혜왕** 위나라에서 왕도 오래오래 하면서(36년) 매번 전쟁에 실패하고도 또 전쟁하고 이후 위나라는 별 볼일 없어짐

이외 오나라 부차, 장탕, 공손홍 등

베스트

- 1. 공자** <사기>를 읽을수록, 공자 없이 사마천은 없고, 사마천 없이 공자가 이토록 세계사적인 지위를 얻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그리고 공자의 행적과 어록은 <사기>라는 천체의 분위기를 지배하는 강력한 별의 족속들 같다고나 할까.
- 2. 항우** 단순 소박한 영혼에다 죽음까지 이토록 미학적이고 비극적이러니, 어찌 끌리지 않을 수 있으리오.
- 3. 범려** 이보다 더 멋질 수 없겠지. 깔 테면 까 봐~~^^. 이상적인 인간의 전형, 도주공 범려.
- 4. 오자서** 복수의 화신으로서가 아니라 삶의 뜨거움을 기꺼이 온몸으로 감내한 '사나이'로서.
- 5. 이광** 꿈수를 부리거나 눈길 한번 허투루 돌리는 법 없이, 오로지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경배를.

워스트

- 1. 한 무제** 한 무제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기>가 나왔을 리 없다는 점에서 공자의 대척점에 있는 존재라 생각함. 극혐까지는 아니지만, NO.1을 주지 않으면 안 될 듯해서리.
- 2. 장탕** 세상을 자기 기준으로만, 아니 자기가 신봉하는 외적인 기준으로만 재단하려 드는, 도필리틱 마인드의 상징. 난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 젤루 혐오스러워.
- 3. 이사** 얌이 곧 탄식인 자. 어찌랴, 이것 또한 많은 사람의 운명일진저.
- 4. 속손통** 세상은 늘 이런 사람들에게 의해 움직여왔다는 것을 뼈아프게 상기시켜준 자.
- 5. 양효왕** 주제 파악 못하고 거들먹대는 찌질한 근성의 마마보이^^.

베스트

순위 매기기가 이렇게 힘들다니! 한고조, 굴원, 가생, 호혜제, 제환공, 연나라 태자 단, 이광, 장양왕, 상양, 관중, 포숙.....  
떠오르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아쉽습니다.

- 1. 췌시황** 에세이 준비하면서 <진시황본기>에 제가 너무 매달려서 그런지(-\_-) 계속 잔상이 남네요. 천하를 통일시키고 제국의 기틀을 다진 위대한 황제라는 명성과 대비되는 비참한 최후도 인상적이었고, 가장 능력 좋고 강한 인간인 동시에 가장 슬픈 인간이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케다 다이준의 말처럼 진시황의 시체 썩는 냄새에서 인간의 냄새가 난다고나 할까요.
- 2. 항우 & 여태후** 말이 필요 없는 인물들입니다. 포악하고 잔혹하지만 뭔가 순진한 구석이 있는 항우,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적들을 제거했던 여태후. 한나라가 존속할 수 있었던 건 다 여태후 때문이었던 듯!
- 3. 공자** 천하를 떠돌아다니며 상가집 개 취급을 받았던 공자.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던 공자의 말년은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더랬죠. 사마천이 공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 4. 형가** 진시황의 암살을 시도했던 형가. 사생결단을 하고 그가 암살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연나라를 떠나기 전에 고점리의 축 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한 편의 영화 같았습니다.
- 5. 월왕구천 & 범려** 변방 국가였던 월나라를 패권국으로 성장시킨 와신상담(臥薪嘗膽)의 주인공 월왕 구천. 그가 와신상담의 또 다른 주인공 오왕 부차를 누르고 춘추전국시대 마지막 패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때와 형세를 정확하게 파악했던 범려 같은 최고의 재상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 같습니다.

- 1. **조고 & 이사**      조고와 이사는 간신중의 간신이죠. 둘 다 굉장히 탐욕스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세 황제에게 아부하면서 전횡하다가 끝내는 그를 바보 만들어 자살하게끔 하는 등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조고. 진시황의 최측근이자 진제국의 핵심 브레인으로서 군현제와 분서갱유를 주도했던 이사. 둘 다 험하게 죽었습니다. 특히 입에 재갈을 물고 고문과 형벌을 받는 이사의 모습은 <사기>를 통틀어 가장 끔찍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암튼 저는 시세와 권력에 영합하면서도 대의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자신들을 정당화하는 인간들의 모습이 역겨웠는데, 그 중 조고와 이사가 최고였던 것 같아요.
- 2. **이세황제**      이세황제. 한마디로 진나라를 말아먹은 바보 황제. (-.-)
- 3. **한무제**      한무제에 대한 악감정은 없어요. 한나라를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한 위대한 제왕이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외척 세력의 싹을 자르기 위해 그의 아이를 낳은 여인들을 죽이는 잔혹한 면모나, 급암을 보고 식겁하면서 숨는 무제의 찌질한 모습들 때문에 워스트!
- 4. **진섭**      진섭이란 인물은 생각보다 너무 임팩트가 없었죠. 항우와 유방이 나오기 전에 어떤 전조로 등장한 인물이었다고나 할까요. 뭐, 그 나름대로는 할 만큼 했겠지만 끝내 자기 한계, 자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천박한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진섭만 생각하면 뭔가 아쉽습니다.
- 5. **楚평왕**      간신 비무기의 농간에 넘어가 며느리감을 취하고, 충신 오사와 오상 부자를 무고하게 처형해 오자서의 원한을 샀던 초평왕. 이런 걸 보면 나라가 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공자



범려



이사



조고



한무제



항우

# 元一의 樂樂

樂樂은 음악을 즐기다(락악), 즐거움을 음악하다(악락), 즐겁고 즐겁다(락락), 음악을 흔들어라(Rock樂) 모두를 의미하는, 원일샘의 음반소개코너입니다~



## 펫샵 보이스의 《Behaviour》 앨범 수록곡 《BEING BORING》

이번 호에서는 누구나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일렉트릭 팝의 명곡 하나를 소개하려 한다. 내 음악 라이브러리의 '가장 즐겨 듣는 음악' 목록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곡은 영국의 남성듀오 펫샵 보이즈(Petshop boys)가 1989년에 발표한 앨범 《Behaviour》에 수록된 <Being Boring>이다. 이 곡은 어린 시절부터 펫샵 보이즈의 절친이었으며 에이즈로 인해 89년 사망한 크리스 도웰에게 헌정된 작품이기도 하다.

곡을 살펴보자. 인트로의 휘파람 소리 같은 사운드에 이어 펼쳐지는 드럼비트, 프레이즈를 고조시키듯 금빛으로 채색되는 전자하프 소리의 아르페지오는 질풍노도의 방만한 젊은 시절의 기억들을 아름답게 수놓는 역할을 한다.

80년대 말부터 90년대까지의 팝 음악을 수놓은 아날로그 전자악기들을 편안하게 사용하여 들을 때마다 결코 넘치지 않는 단순하고 빈티지한 사운드 구성에 오히려 더 감칠맛 나는 매력을 느끼게 된다. 이는 요즈음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자극적이고 적극적인 일렉트로닉스 반전 기법에 의한 사운드라 할 덤스텝(Dub Step)이나 글리치(Glitch) 류에 진저리가 난 사람들에게는 사운드의 '과유불급'에 대한 신선한 재발견이 될 것 같기도 하다.

곡의 제목은 멤버 중 주로 사운드를 책임지고 있는 닐 테넨트가 『위대한 개츠비』의 작가 스콧 피츠제럴드의 부인이자 사고계를 전전하다 정신병으로 사망한 젤다 피츠제럴드(Zelda Fitzgerald)의 글을 읽던 중 얻은 아이디어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때 읽었던 문장은 "She refused to be bored, chiefly because she wasn't boring." (그녀는 지루해짐을 거부했다. 왜냐하면 사실 지루할 틈이 없었기에.)

"We were never being bored" 우린 지루했던 적이 없었어..... 노래를 듣는 내내 남는 문장이기도 했고, 언제나 그렇게 살고 싶기에 따라 불러보게 되는 문장이기도 하다. 가끔 "나는 혼자 있어도 잘 놀고 지루할 틈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면 은근히 부러웠던 마음이 이제 점점 일상이 되어가고 있기에.

그런데 이 곡은 또 한편으로는 공부할 과제와 해야 할 일들의 더미 사이에서 부담과 묘한 행복감을 느끼는 이들에게는 휴식처럼 스며드는 음악일 수도 있으리라.

어떻게 우리들 자신이 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일임을 또렷이 알 수 있을까?

피츠제럴드 부부의 묘비명에 새겨진 『위대한 개츠비』의 마지막 구절을 보자.

"그렇게 우리는 과거 속으로 끊임없이 밀려가면서도, 흐름을 거스르며 배를 띄우고, 파도를 가르는 것이다."

#번역된 한글 가사와 아리송한 원문의 숨은 뜻까지 잘 정리해 놓은 참조 링크: <http://derek42.blog.me/220056468257>

# 소설 읽는 수경

세계를 올려다보는 짐승의 눈 \_ 아고타 크리스토프, 『어제』



나는 단문을 구사하는 데 있어 좀 서툴다. 전개상 복합문이 불가피한 때도 있으나 많은 경우 적확하게 설명할 능력이 부족함을 숨기기 위해, 혹은 단순하게 특정 저자들의 스타일을 모방하는 재미를 만끽하느라 문장을 늘어뜨리기 일쑤다. 이견 취향이나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무능력이다. 그래서 수많은 단문들로 단단하게 쌓아올린 글을 읽을 때면 놀라움과 호기심과 질투가 마구 솟구친다. 나로서는 이를 수 없는 종류의 아름다움이 거기 있으니까. 어떻게 저런 문장들만으로 한 편의 글을 완성시킬 수 있었을까. 그런 독심과 배포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저토록 짧고 적고 메마른 문장들이 어째서 참을 수 없는 매혹을 뽐내고 있는 것일까.

아고타 크리스토프의 경장편 『어제』를 읽는 동안에도 그런 생각을 했다.

그녀의 대표작 『존재의 세 가지 비밀』을 아직 읽어보지 못한 채였지만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채 200페이지도 안 되는 이 책이 내뿜는 낯선 아름다움은 압도적이다. 작가는 고국을 떠나 낯선 땅에서 살고 죽어야 하는 망명자들의 삶(이는 그녀 자신의 자전적 이야기이기도 하다)을 아주 적은 수의 문장만으로 그린다. 하지만 조국의 정치적 상황이라든가 그 세계사적 의미를 묻는 대신 이야기는 인간 존재가 타고난 방랑과 상실의 운명 쪽으로 나아간다.

시체부검 결과, 베라는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죽었음이 판명되었다.

우리 동족의 첫 번째 죽음이었다.

얼마 안 있어 또 다른 죽음들이 이어졌다.

로베르는 욕조에서 동맥을 끊고 죽었다.

알베르는 “너희는 내 똥이나 먹어라”라고 우리말로 적은 쪽지를 남기고 목매달아 죽었다.

마그다는 감자와 당근 껍질을 까고 나서 바닥에 앉아 가스벨브를 열고 오븐에 머리를 밀어 넣은 채 죽었다.

술집에서 네 번째 모금이 있던 날, 종업원이 내게 말했다.

—당신네 외국인들은 만날 조의금을 걷고 만날 장례식을 하는군요.

나는 그에게 대답했다.

—우리는 맘껏 즐기고 있다네. (60)

나는 걸었다. 간혹 다른 행인도 있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가벼워 보였고, 무게가 없는 사람들 같았다. 뿌리가 없는 그들의 발은 결코 상처받지 않았다. 그것은 집을 떠난 사람들, 고국을 떠난 사람들이 가는 길이었다. 그 길은 아무 데로도 갈 수 없는 길이었다. (115)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많은 죽음과 실패가 이 짧은 글 안에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그것들에 감정적인 주석을 달아놓는 건 그녀 스타일이 아니다. 현실에서라면 큰 충격을 남겼을 법한 사건들이 이 안에서는 신문의 토막기사처럼 처리되고 기묘함을 자아내는 에피소드로 끝날 뿐 어떤 상흔도 남기지 않는다. 무심함이야말로 이야기 전체를 지배하는 정조라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그래서, 이야기는 슬퍼진다. 작가는 역설적인 방식으로 최고의 설득력을 확보한 셈이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어떤 사건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누군가는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었다. 어떤 소설의 주인공들은 그 자신이 지적인 내레이터가 되어 이 사건을 회고하고 설명한다. 어떤 소설의 전지적 화자는 3인칭을 사용해 인물의 내면을 속속들이 설명해줄 것이다. 하지만 『어제』의 주인공 ‘상도르’의 경우는 다르다. 나와 동족들은 낯선 땅을 걷는다, 고 적을 수는 있으나 그에게 그 이상은 무리다. 그것을 설명하기에 이국땅의 언어는 너무 낯설고, 고국의 언어는 구역질이 난다. 거지이자 창녀인 십대 소녀의 아이로 태어난 순간부터 지쳐 있던 그는 고통과 상처에 무감각해진지 오래다. 그는 그야말로 텅 비어 있다. 그 텅 빈이 독자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서늘하게 한다.

이렇게 보건대 우리가 중요시하는 ‘스토리’ 혹은 ‘내용’이란 별 것 아닌지도 모른다. 어떤 글을 읽으며 충격에 몸을 떨거나 혹은 실소를 터뜨리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것의 스타일을 감각하기 때문이다. 문장의 짧고 긴 정도라든가 구두점의 활용 정도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작동해 글의 물리적 호흡을 결정한다. 그것은 태양을 올려다보고 있는 주인공의 들숨이고, 비를 맞으며 뛰어가는 주인공의 날숨이다. 누군가를 떠나보냈을 때 주인공의 신체적 반응이고, 누군가를 죽일 때 주인공의 신체적 변화다. 요컨대 문체란 화자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 시각의 반영에 다름 아니다. 그러니 감히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문체가, 전부다. 세상과 사건을 대하는 태도 전부가 거기서 다 표현된다.

나는 앞마당에서 살았다.

배가 고프거나 졸리거나 추울 때만 집으로 들어갔다. 부엌에는 먹을 것이 있었다. 기름에 지진 감자, 구운 옥수수, 응고 된 우유, 그리

# 소설 읽는 수경

세계를 올려다보는 짐승의 눈 \_ 아고타 크리스토프, 『어제』



고 가끔은 빵도 있었다. 잠은 부엌 난로 옆 짚더미 위에서 잤다.

부엌의 열기가 방으로 퍼지도록 하기 위해서 대개는 방문을 열어놓았다. 그래서 나는 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낱알이 보고 들을 수 있었다.

어머니는 저녁이면 부엌에 나와서 대야에 뒷물을 하고, 행주 끝으로 물기를 닦고 잠자리로 돌아갔다. (26)

내 눈앞에 보이는 건 한 마리 작은 짐승이다. 내게 덤벼려고도 내게서 달아나려고도 하지 않고, 아무 의미도 담겨 있지 않은 새까만 눈으로 이쪽을 바라보고만 있는. 그가 사는 세계, 이 무자비한 세계는 자신의 새끼를 무정한 짐승으로 키운다.

아, 그에게도 두 번의 큰 저항이 있기는 했다. 두 번 다 칼을 높이 치켜들었다. 한 번은 친부의 별거벗은 등을 향해, 다른 한 번은 사랑하는 여자의 남편의 복부를 향해. 두 번 다 죽였다 믿고 달아났으나 알고 보니 두 번 다 실패했다. 그는 온힘을 다해 칼을 휘둘렀지만 상대는(다시 말해 삶은, 세계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그렇게 쉽게 베이고 물러날 리 없는 것이다. “나는 누군가를 확실하게 죽일 능력조차 없다”고 그래서 그는 생각하고 만다.

첫 번째 살인(?) 후 그는 자발적 고아가 되었고 공장 노동자가 되었으며, 두 번째 살인 후에는 연인을 떠나보내고 사랑하지 않는 여자와 결혼해 아이를 낳았고 여전히 공장 노동자이고 예전에 쓰던 시를 더 이상 쓰지 않게 되었다. 이런 게 삶이다. 여기서 무슨 말을 더 해야 하나. 상도르가 겨우겨우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물론 그것이 자아내는 비통함과 쓸쓸함은 전적으로 독자가 져야 할 몫이다.

이런 글이니, 질투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 이 사람을 보라:

## 史記 인물 다시 읽기

주군을 위해 명예롭게 살리라! 애끓는 연서戀書의 주인공 악의樂毅

사마천은 「연소공세가」에서 연나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연나라는 밖으로는 만맥(蠻貊:중국 화하족華夏族 이외의 부족) 등 여러 종족들과 대항하고 안으로는 제齊나라와 진晉나라에 대항하면서 강국 사이에 끼어 간신히 명맥만을 유지하느라 국력이 가장 약하였고, 거의 멸망 직전에 이른 경우도 한두 차례가 아니었다.” 연나라는 지금의 북경과 하북성 지역에 위치한, 춘추전국시대 최북방의 나라였다. 늘 북쪽 오랑캐에 시달리고 강국 진나라와 제나라에 이리저리 채이면서 전쟁의 시대에 어찌어찌 명맥을 유지하며 살아남았으나, 춘추전국시대 제후국들의 연표인 「십이제후연표」와 「육국연표」에서 늘 빈 칸이었던, 그야말로 유아무야한 나라였다. 그런 연나라가 전국시대에 들어 크게 한 번 “번쩍!”하고 세상에 드러났으니, 그것은 연소왕燕昭王와 악의장군에 의해서였다.

“세상에 이런 일이!”에 뺨치는,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진흙탕 같은 춘추전국의 시대에, 가장 웃기고 가장 황당한 일이 연소왕의 선왕先王인 연왕 쾌궤에 의해서 발생했다. 춘추전국시대 유일무이한 ‘왕위 선양 사건’! 연왕 쾌가 재상 자지子之와 녹모수鹿毛壽 일당의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 왕위를 자지에게 양도한 것이다. 웬 요순堯舜 코스프레! 『사기』에는 별별 왕들이 무수히 등장하지만 이렇게 어리석은 왕은, 예의를 갖추느라 전쟁에서 패한 송 양공宋襄公 이후 처음이다. 신하를 왕으로 세우고 스스로 신하에게 복종하는 왕이라니! 자지가 왕권을 차지하고 3년 만에 연나라는 엄청난 혼란에 휩싸이고, 장군 시피市被와 태자 평푸이 공모하여 자지를 공격하면서 내란상태에 빠지고 만다. 이 때, 제나라가 옳다구나! 연나라를 공격하니, 폭정과 혼란에 치진 연나라 군사들은 성문을 활짝 열어 제나라 군대를 맞이했다고 한다.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에 왕위에 오른 태자 평(연소왕)은 연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제나라에 복수하고자 마음먹는다. 하여 온 마음을 다해 널리 현자들을 초빙하는데, 악의는 그때 위魏나라로부터 온 인물이다. 그는 원래 조나라 사람이었다. 조나라에서 사정이 여의치 않자 위나라에 머물고 있던 차에 연나라에 사신으로 왔다가 연소왕의 극진한 대우에 신하 되기를 자청한 것. 연소왕은 악의를 단번에 아경야卿이라는, 정경正卿 다음의 높은 직위에 임명한다. 연소왕은 그렇게 맞아들인 각 국의 현자들과 차근차근 나라의 기틀을 잡고 연을 부강하게 만들어 나갔다.

소왕 28년, 드디어 때가 되었으니! 소왕은 악의의 제안을 받아들여 진秦, 초, 한, 조, 위 다섯 나라와 합종하고 그를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하여 제나라를 공격한다. 결과는 제나라의 대패! 다른 나라들은 전쟁이 끝나자 각 국으로 돌아갔지만 악의는 연나라 군사를 이끌고 패주하는 제나라 병사들을 끝까지 뒤쫓아 제나라 수도 임치臨淄를 점령하고 제나라의 모든 보물들을 연으로 보낸다. 그는 제나라에 머물면서 항복하지 않은 제나라의 성을 하나씩 평정하여 제에 머문 지 5년 만에 거궤와 즉묵卽墨을 제외한 70여개 성을 함락시켜 연나라의 군현으로 귀속시켰다. 제나라를 패망 직전까지 꺾꽂아주었으니 악의는 연 소왕의 평생소원에 1000% 부응한 것이다.

그러나! 제나라의 멸망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소왕이 죽고 그의 아들 혜왕惠王이 즉위하게 된다. 문제는 혜왕이 악의를 싫어한다는 것. 왜, 무슨 이유로 그가 악의를 싫어하게 되었는지는 『사기』 어디에서 나오지 않는다. 당시 제나라 즉묵 성은 전단田單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는 둘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반간계反間計를 쓴다. 제나라 첩자를 통해 연나라에 이런 소문을 퍼뜨린 것. “악의는 연나라 왕과 사이가 안 좋다고 거와 즉묵을 무너뜨릴 수 있으면서도 일부러 전쟁을 질질 끌고 있대요~ 자기가 제나라에서 왕이 되려고 한대요~” 하여 어찌 됐냐고? 악의는 경질됐고 기겁騎劫이 그를 대신해 사령관이 되었다. 악의는 사태를 짐작하고는 조나라로 망명해 버렸고. 이후 전단이 즉묵에서 일어나 연나라 군사를 치고 이전에 잃어버린 제나라의 모든 성을 되찾는다. 연 소왕 원년부터 30여년에 걸친 모든 노력이 단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이다. 연 혜왕은 땅을 치고 후회했으니 이미 때는 늦어도 한참 늦었다. 그는 이제 조나라가 악의를 이용해 연나라가 지쳐 있는 틈을 타 공격할까 전전긍긍한다. 그래서 악의에게 편지를 썼다지. “과인은 장군의 공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소. 과인이 장군을 기겁과 교대시킨 것은 타지에서 장군이 너무 고생을 하는 것 같아 좀 쉬라고 그런 것이요. 그런데 장군은 과인의 뜻을 오해하고 연나라를 버리고 조나라에 망명해 버렸소. 선왕께서 장군을 그리 우대하셨거늘 그 보답은 어찌할 것이요?” 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하여 악의가 혜왕에게 답서를 쓰니 그것이 그 유명한 「보연혜왕서報燕惠王書」이다.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연 소왕에 대한 악의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연서戀書 아닌 연서. 이 편지는 중국 고전문학사에서 명문으로 평가 받으며, 역대 문장 선집에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다고 한다. 문장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으나 연 소왕에 대한 악의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

편지에서 악의는 자신이 왜 연나라를 떠나 조나라로 왔는지 그 이유를 밝힌다. 그는 연나라에 그대로 남아있을 경우 당할지도 모를 불명예와 모욕이 두려웠다고 말한다. 내가 재앙을 당한다면 이는 나를 알아봐준 선왕의 명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나를 한낱 변소



## 주군을 위해 명예롭게 살리라! 애끓는 연서戀書의 주인공 악의樂毅

의 쥐새끼나 길거리를 쏘다니며 똥이나 주워 먹는 개가 아니라 포효하는 호랑이로 써준 선왕의 뜻을 생각한다면 나는 절대 개죽음을 당해서는 안 된다! 악의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다. 오자서는 오나라 왕 부차가 선왕인 합려만 못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간諫하다 비참하게 죽어 자신을 써 준 합려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말았다! 나는 그럴 수 없었다! 이렇게 빙 돌려 당신은 선왕만 못하다고 연 혜왕을 ‘디스’한 악의는, 왕께서 걱정하는 일, 다시 말해 조나라를 위해 내가 연나라를 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다.

**“신은 제 능력도 제대로 모르면서도 명령을 받들어 가르침을 따르면 다행히 허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명을 받고 사양하지 않은 것이옵니다.” 「보연혜왕서」**

「보연혜왕서」에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표현은, 연소왕이 과감하게 자신을 아경에 임명했을 때, 또 제나라를 공격하고 공을 세우자 창국昌國에 봉하여 창국군昌國君으로 삼았을 때를 생각하며 한 말이다. 나는 내 능력이 아경이 될 만한지, 작은 제후에 비길만한 지위를 얻을 만한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왕께서 나를 그와 같은 지위에 합당하다 여기셨으니 왕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겠지 하고 믿고 따랐던 것이다. 왕께서 나의 능력을 것처럼 보셨다면 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하여 나는 망설임 없이 당당하게 왕의 명령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니 어찌 내가 개죽음을 당하여 나의 명예와 선왕의 명예에 흠집을 낼 수가 있겠는가.

저런 군주를 가질 수 있었던 악의는 행복한 사나이임에 틀림없다. 하여 나를 알아주는 군주, 나도 모르는 나의 능력을 들어내 써 줄 군주를 갈망하는 신하 누구든 악의의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연 소왕과 악의. 그들의 서로를 향한 찰떡같은 마음은 춘추전국시대 늘 약했던 연나라를 아주 짧은 한때마다 찬란하게 빛나게 해 주었다. 윤사장

# 불교n “불교와 스피노자” 시즌2 에세이 발표

- 이 모든 뜨거움을 다시 한번!

무려 5개월에 걸친 대장정 끝에 드디어 지난 1월 12일 대망의 에세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시간에 맞춰 속속들이 모이는 사람들의 행색이 참으로 볼 만 했지요^^;

차마 에세이 내용을 알려드릴 수는 없어, 여기 에세이 참가 후기만 모아 모아 올려봅니다. 에세이는 제대로 못 썼으나 불교 공부와 붓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삶에 대한 각오만은 뜨거운 우리들, 이 기세를 몰아 3월 시즌3까지 달려갑니다~!!

벌써 기말 에세이 발표를 한 지 2주가 지나 기억이 가물가물 하네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채운 쌤의 말씀이, 우리가 언어 속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새로운 텍스트를 읽거나 새로운 개념의 사고를 접하게 되더라도 머릿속에 박혀 있는 기존의 언어 또는 개념대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그건 새로운 저자를 만난 것이기는커녕 자기 사고를 강화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예를 불교에서 말하는 고(苦), 기쁨, 욕망, 법(法) 등을 기존에 막연히 알고 있던 식으로 해석하면, 불교는 일반 염세주의와 다를 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고, 기쁨, 욕망, 법의 용법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이해하고 사고할 때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된다는 것이지요. 저도 이번 에세이에 대한 평가를 들으며 제가 불경을 잘못 이해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 그리고 에세이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에세이 발표 당일엔 끝까지 듣고 집중할 수 있는 체력을 남겨두는 게, 쓰는 일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 또한 다시 느꼈습니다.^^ 그게 그간의 수업 전체를 다시 정리하고 요약하는 시간이라는 걸 미처 몰랐네요. 앞으로 에세이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걸로... ^^ **(경은하 쌤)**

불교n 시즌2 <붓다와 스피노자> 에세이 발표 당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행색이 부스스했다. 그래서 그런지 문득 에세이 발표가 잔치보다는 장례에 가깝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모든 것을 내보이고 다 버릴 수 있는 장렬한 전사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기도.

방대한 아함경의 바다에서 이 섬, 저 섬으로 황망하게 허우적거릴 것을 걱정하셨는지 이번에 채운 쌤은 맥을 단단히 붙잡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두 가지의 주제를 내주셨다. 하나,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통해 각자가 자신을 직면하기. 둘, 이제까지 읽은 불경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 자기식의 풀이법을 내보기.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불교n을 지켜주시는 완수 쌤이 중독(^^;)에 얽힌 기억을 꺼내면서 포문을 여셨다. 이어 하나둘 각자가 부딪치는 지점에서 글쓰기, 불확실한 미래, 삶과 일치하지 않는 삶, 그리고 공부 등등에 대해 꺼내놓고 확인했는데, 햇빛이 가득한 장에 꺼내놓고 보니 한 줌도 되지 않을 것에 자신이 얽매어 있었다는 생각에 부끄럽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였다. 그 두려움에 움짱달짝 하지 못하는 존재 자체가 나라는 사실도 발견했고.

결국 이번 에세이 발표는 내 일상에서 아함경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작업이었는데, 이 일이 내게 그토록 부담이 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보니 사소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대충대충 넘기고 붓다의 말씀이라고만 생각해 너무 당연하게만 받아들이는 안이한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날선 칼날처럼 공부해야 장렬한 전사도 할 수 있음을 가슴 깊이 느낀, 봄날처럼 따뜻했지만 냉정과 열정이 교차했던 불교n 에세이 날이었다는! **(미영 쌤)**

1월12일. 불교n 에세이 발표를 무사히 마쳤다. 무사히? 음, 어쨌든 끝났다. (-.-)

불교n을 매학기 마칠 때마다 드는 생각이지만, 참 어렵다. 매번 다르게 어렵고 괴롭다.

작년에는 내 말인지 누구 말인지 모를 글을 쓰고 읽느라 괴로웠고, 올해에는 내가 없는 글을 쓰고 읽느라 괴로웠다. 충분히 고민하지 않았다. 지금은 그런 글은 쉽게 ‘뽀록난다’는 걸 알면서도(모르는 건가?) 무슨 용기와 염치로 그렇게 썼을까 싶지만, 어쨌든 나는 그런 글을 썼다. 지금 내가 딱 그렇게 살고 있어서 그런가 싶다. 고민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다는 게 글에서 보였다. 이런 나를 보면 공부를 하는 헛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지혜로워지는 건 아닌 것 같다. 죽을 때 나한테 미안하지 않으려면 책을 읽을수록 “바보”(-\_-)가 되는 일은 없어야 될 텐데 걱정. 30년 동안 계속하면 내가 조금 바뀌려나. 다행인 건 불교n이 계속된다는 거. 그래서 나는 다시, 한 번 더! **(태람)**

이번 에세이는 생소한 개념을 자기 언어로 정리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공통과제로 계속했던 잡아함경 해석하기와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써보기였으니 주제만으로 보면 제일 쓰기 편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에세이는 뭘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를 몰라서 고민하다 망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은 그런 변명이 전혀 통하질 않게 돼 버렸습니다. 내 언어가, 생각이 얼마나 타성에 젖어있는지 글쓰기를 통해 또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두려움은 알 수 없는 미래를 대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과거에 자신이 알게 모르게 한 부끄러운 행동이 두려움의

# 불교n “불교와 스피노자” 시즌2 에세이 발표

- 이 모든 뜨거움을 다시 한번!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은 잊고 있던 두려움을 들춰냅니다. 앞으로라도 잘 살아야 하는 이유! (김완수)

경전을 읽을 당시만 해도 막 감동적이고 재미있고 암튼 그랬는데, 막상 에세이를 쓰려고 하니 영 안 써져 아주 혼났습니다.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고 전달까지도 막막함만 느낄 뿐 제대로 쓸 수가 없어, 이거 에세이를 못 써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지도, 라고도 생각했죠. 결국 써가긴 했습니다만 스스로 영 개운치 않습니다. 아마도 쓰려는 순간 이미, 그간 공통과제에서 적은 문장 이상을 쓰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한 채로, 똑같은 말만 하면 스스로 너무 식상해서 싫으니까 이도저도 못하고 시간을 보낸 거죠. ‘할 수 있는 말’들로만 가득 찬 글이라니 부끄럽고 싫습니다. 다음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을 단 한 문장이라도 꺼내놓을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런 게 에세이를 써서 얻는 보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수경)

영혼이 가루가 되도록 탈탈 털리고 나서 며칠 간 멍했다. 욕먹는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보통 그러하듯이 며칠 지나면 알아서 잘 아물려나 하고 기다려봤는데 잘 안됐다. 그날 들은 몇몇 문장들은 상기할 때마다 그 때보다 덜하지 않은 정도로 쿡쿡 찔렸다. 반감과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고, 부끄럽고 슬프기도 했다. 그 사이에, 차곡차곡 모아놓은 예전 공통과제와 에세이들을 다시 읽어봤다. 그 동안 난 공부로 무엇을 쌓아 올리고 싶었던 건지, 정말 그렇게 비난을 받을 정도로 큰 허세를 부리고 있었던 건지 확인하고 싶었다. 시간이 좀 지나 남이 되어버린 내 글들은 눈 뜨기 보기 힘들 정도였다. 누군가 읽어주길 바라고 쓴 글이었지만 ‘~하는 척’ 하는 데 그쳤다. 그런데 공부를 더 하고 그만하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척’ 하는 게 공부하고 글 쓸 때만 벌이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빨리 결정해야 할 것은 이대로 살고 싶은지, 아니면 그만 척하며 살고 싶은지일 것 같다. (황인석)

또 한학기가 끝난 것 뿐 아니라 잡아함경을 다 읽어버렸다는 뿌듯함을 느낌. 붓다와 제자들 그리고 여러 바라문들과의 문답을 실시간으로 보는데 재미있었음. 붓다는 비유의 달인! 그 누구라도 이해시킬 것 같은 화술의 달인! 또 화엄경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더니 거기서는 또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실지 궁금. 그리고 본격적으로 스피노자도 읽게 될 테니. 다시 시작일세! (제리)

불교n 시즌3 “화엄경과 에티카”는 3월 2일, 향긋하고 아지는 매운 봄바람과 함께 시작됩니다. 화엄의 세계에서 노닐고 싶은 분들, 경전을 공부하듯 읽어보고 싶은 분들, 스피노자 철학을 꼼꼼히 뜯어먹고 싶은 분들, 다른 이들과 함께 토론하고 글을 써보고 싶은 분들, 이 모든 분들을 기다립니다. ^^



# 이달의 선물

매번 장기 프로그램에 참가한 뉴 페이스들 가운데 유독 선물 보따리 풀어놓기를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꼭 한 분씩 계십니다. 예를 들면 **은남쌤**이나 **수영쌤** 같은. 이번에 절차탁마 '니체를 읽자' 2학기의 신입생(편입생?) 가운데 눈에 띄는 분은 **이종은 쌤**. 하루는 한지로 제작된 데다가 예쁜 그림이 한 점씩 담긴 고급진 달력을 가져오시더니, 또 하루는 예쁜 상자에 담긴 커피콩을 선물해주셨습니다. 잘 걸어놓았고, 잘 갈아(?) 마시겠습니다 ㅋㅋㅋ

한 달 간 마이애미로 장기 외유 중이셨던 **백수영 쌤**이 돌아오셨네요. 물론 이번에도 선물 보따리를 잔뜩 안고서. 늘 땅콩이나 기껏해야 아몬드를 주워먹던 우리들 앞에 마카다미아와 피스타치오를 잔뜩 풀어놓으시더니, 이어 초콜릿과 건포도, 짭조름한 프레즐 과자와 향긋한 유기농 티까지! 어렸을 때 읽던 미국 청소년 소설에 나오는 기숙사 풍경 같았어요. 개네들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런 거 방에다 풀어놓고 파티하더라구요 ㅎㅎ 다만... 정체를 알 수 없는 레몬술(?)은 보기에 예쁘기는 한데, 이거 소주에 타 먹어야 하는 건지 뭔지 아직도 알 수 없습니다;;

이번 달의 제일 핫한 선물은 뭐니뭐니해도 **위경순 선생님**(채운쌤의 어머니)이 보내주신 석화! 거대하고 무거운 박스를 킁킁 옮겨 놓고 열었더니 그 안에 석화가 짝 들어차 있었습니다. 방금 찌넌 오동통한 굴만이 줄 수 있는 따뜻한 국물과 향긋한 바다내음! >< 덕분에 동사서독 학인들과 함께 잘 먹었어요. 양이 하도 많아서 이틀날까지 먹었다는.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구혜원**이 취직을 하더니, 이번에는 첫 월급을 탄 기념으로 말도 없이 사과 한 박스를 보냈습니다. 먹어본 사람은 누구나 감탄하는 효정이네 과수원표 사과! 혜원아, 취직 축하한다. 진심이다.

